

# 익산시, 교육중심도시 '도약'

# 유천생태습지 책길 거닐며

### '2022 익산 북페스티벌', 북(Book)장대소 책길위에 개막

익산시는 자연 속에 '책길'을 만나는 이색 북 페스티벌을 열어 책 읽는 도시 익산 조성에 나선다.

시는 BOOK장대소 책길을 거닐다 슬로건으로 14일, 15일 이틀간 2022 익산 북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번 북페스티벌은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진행해 유천생태습지와 유천도서관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 자연'을 콘셉트로 축제 방향을 제시했다.

북페스티벌은 북토크, 인문학과 음악 공연,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4일 '책 읽는 가족 및 2022 한권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시작으로 개막을 알린다. 이후 대표 베스트셀러이자 2022 익산시 한권의 책으로 선정된(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와 책을 노래하는 서울밴드의 음악이 함께 하는 북콘서트도 진행된다.

15일에는 어린이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22 익산시 어린이 권장도서로 선정된 <여름방학 숙제 조작단>의 이진하 작가 강연,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책 저자 4인의 그림책 작가 강연 및 체험, 클래식 공연 등이 연이어 진행된다.

올해 '장미의 이름은 잠미'를 새롭게 발표한 은희경 작가의 강연이 북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올해 북페스티벌은 희망연대 시민교육센터와 협업으로 '에코북티어링'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에코북티어링'이란 유천생태습지에서 나뭇잎과 지도를 이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 익산시 한권의 책 선정 도서(불편한 편의점) 순례주행, 여름방학 숙제 조작단 및 생태, 자연 관련 미션을 수행하며 유천생태습지의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축제기간 내내 유천생태습지 일원에는 카드자갑 만들기, 텀블러 에코백, 인생네컷, 캐리커처 체험, 가족 북마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숲 속 문화체험이 펼쳐진다.

또한 익산 산지 차를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인 '숲 속 작은 카페', 생태 주제의 큐레이션 도서와 곤충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숲 속 작은 책방'도 상시 운영하며, 마술 버블, 숲 사탕을 공연으로 즐기는 1인 버스킹 공연, BOOK장대소 스탬프 투어도 함께 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시민을 찾아가는 2022 익산 북페스티벌"은 책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책길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진정한 책 축제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평생학습축제·교육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미래사회전환 동력도대마련

익산시가 미래사회 전환 동력인 평생 교육의 문화를 확대하며 '교육중심 도시'로 도약한다.

익산시는 익산교육지원청과 공동주관으로 15일 배산체육공원 일원에서 '2022년 익산시 평생학습축제 & 교육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한병도·김수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 관계자, 학생, 시민 등 7천800여명이 축제에 참가해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익산교육지원청과 함께 뜻깊은 익산시민 평생교육으로 '놀다 웃다 나누다'라는 주제로 누구나 일상 속 평생학습권을 누리고 지속 가능한 평생 교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평생교육의 랜드마크인 익산시 평생학습관·문해교육센터가 개관 후 처음 열리는 축제이자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돼 어린이 성인 어른, 다문화가족 등 시민들의 축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행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

해 익산시의 '평생학습 축제 체험부스'와 익산교육지원청의 '교육 공동체 한마당 체험부스'로 나뉘어 운영한다. 이번 축제는 생애주기별로 키즈존, 청소년존, 어른이존으로 아이부터 노년까지 전생애 배우는 '평생교육'에 의미를 둔 체험부스를 마련한다.

호원대학교 항공관광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글로벌존은 현시대에 발맞춰 세관신고 등 비행 중 승객들이 겪을 법한 기내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미래존의 디지털 배움터는 전자기기 키오스크를 어른들이 직접 체험하여 실용적이며 시대 흐름에 발맞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9개 읍·면·동이 참여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시간을 가져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과 주민자치위원들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어간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마이닝센터 기능축소 우려 표명

### 동향 파악·향후 대책 마련 위해 현장행정 추진

익산시 정현을 시장은 지난 13일 익산시 합일읍에 위치한 마이닝센터 방문해 기능축소에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최근 마이닝센터에서 담당하던 광산안전교육이 광산안전센터(태백시 소재)로 이전된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센터의 조직개편에 따라 서·남부 광업전문인력들은 광산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태백을 방

문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익산시는 향후 정치권과 연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서·남부권 광업인을 위해 교육기능의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석재인 전문교육을 위해 국립석재산업 진흥센터를 유치, 광업과 석재 전문인력양성 기관을 집적화하여 자원주권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마이닝센터를 방

문한 자리에서 "향토산업을 기반으로 30년을 유지해온 공공기관이 하루아침에 기능이 축소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 산하 마이닝센터는 1992년 12월 석재의 도시인 익산에 석재지원센터로 개소하여 석재 기능공양성 등 석재산업 지원업무를 실시하다가, 2010년부터 광업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기능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며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서경대, 화학사고 예방 연구사업 협약체결

군산시는 13일 서경대학교와 화학사고 예측 및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기술원에서 발주하고 서경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이 참여한 화학사고 예측 및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은 화학사고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DB구축 및 분석 시스템을 통해 화학사고 리스크를 예측하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협약식으로 관내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현장검증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협약식 이후에는 워크숍을 개최, 화학사고 예측 및 리스크 평가 기술에 대한 사업 내용을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소개하고 향후 협력과 현장검증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영재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화학사고 예측 및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측하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화학물질 관련 업무에 한 획을 긋는 진일보한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보석도시 익산, 2022 보석대축제 개최

보석도시 익산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보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2022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개최된다.

(사)주얼팰리스협의회(회장 김대길)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보석대축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왕궁면 소재 주얼팰리스와 보석 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익산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를 3년 만에 개최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보석의 도시 익산만의 특색을 보여주기 위해 민간의 준비를 한 상태다.

주얼팰리스 55여개 업체가 선보이는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 특별할인행사(24K, 다이아몬드 제외)를 진행해 보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주얼리 우수제품 특별전시, 보석 카페 운영, 보석 가공 시연, 주말 가족소풍 프로그램과 연계 등 다양한 보석체험 및 경품 대잔치 행사를 진행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 탁류길, 가을철 걷기좋은 11곳에 선정

군산시는 13일 전북도가 선정한 가을 단풍철 걷기좋은 11곳에 군산 탁류길(구불6-1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탁류길은 백운 채만식의 소설 '탁류'와 조정래 소설 '아리랑'의 배경지가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어 역사적인 숭경과 문화이 배어 있는 길로, 우리 한민족의 아픔과 향정을 배우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길이다.

탁류길은 총거리 7.5km, 소요시간 120분이 걸리는 길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수덕공원, 해망굴, 월명공원, 신흥동일본식가옥, 초원사지, 동국사, 선양동 해돋이공원, 구)군산세관 등을 지날 수 있고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길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이 길을 따라 맛집이 밀집되어 있어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농업인 위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

군산시는 13일 비료, 면세유 등 농자재값 인상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무기질비료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102%, 면세유 가격은 70% 상승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경영안정자금 25억원(ha당 26만6천원, 5ha 상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가 중 군산시민으로 논밭 구분없이 익산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시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농업인의 계좌에 입금할 계획이다.

이외는 별도로 시는 맞춤형비료 공급사업 30억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31억원, 면세유 가격안정 사업 9억원을 투자해 각종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바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